길을 묻는 이에게

대행스님

독자님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PC통신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의 대행스님께 여쭈어 응답해 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편집자〉

● 보낼곳: 우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 FAX: (02)737-0697/8
● PC통신: 인터넷부다피아
http://www.buddhapia.com/mem/hanmaum

물질세계만 보니 자유롭게 살수 없어

☞ 15면에서 계속

걸 어떻게 해야만이 없어질 수 있겠습니까. 예?(신도: 범소유상 개시허망 약견제상비상 즉견여래).

말로만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이 마음 속에 진실로써 '나'라는 게 없고 그 자체도 없어야 됩니다. 그래야 지금 말씀하신 거와 마찬가지로 여래가 되죠. 여래라 함은 어떠한 부처님의 이름이 아닙니다. 여러분과 더불어 같이 모두 돌아가는 자체가 그대로 여래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많아도 둘이 아닌데 하던, 체가 없는 것이니 나도 마음에 체가 없는 것이요, 상대도 체가 없는 것이니까 모든 것을 한마음으로 입력을 한다면 두드러지지 않으며, 마음 속에 이 세상을 다 넣어도 그릇이 작지 않고 두드러지지 않고 꺼내도 줄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은 말로 하는 게 아닌데 방편의 말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말을 듣고 한데 떨어뜨리지 않는다면 법이 될 것이고, 내가 말을 하는데도 한데 떨어뜨리지 않고 말을 한다면 이것도 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듣는 자와 하는 자가 항상 둘이 아닌 것입니다 마음과 마음이 한데 합쳐져서 밝아질 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네가 했다 내가 했다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내가 한 사이도 없고 내가 말한 사이도 없고 나도 없고 아뇩다라삼먁삼보리도 없는 것이니 그 무슨 까닭인가 하고 물었을 뿐입니다. 제자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요. 그러면 이만하고 질문이 있으신 분은 질문하십시오. 그리고 질문하시는 분들은 삼배를 일배로 하세요. 몸만 왔다갔다하고 허서 삼배가 되는 게 아닙니다.

머리카락 빠져 고민입니다

문 안타까운 마음에 어리석은 질문 한가지 드리겠습니다. 저에게는 남동생이 한 명 있는데, 나이도 어린 아이가 머리카락이 빠져서 별로 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인지 본인도 굉장히 삶에 대해서 회의적이고 성격까지도 변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스님께 여쭙니다.

답 인체의 모든 생명 의식들은 내가 생각하는 대로 따라주게끔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생각을 '내 인체의 모든 의식들이 한마음으로 작용을 해주니까 머리가 빠지는 것도 낫게 할 수 있다'하는 믿음을, 물러서지 않는 믿음을 가진다면 될 수 있을 겁니다.

공동묘지 영령들과의 인연

문 스님, 본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후미에 대해서 잠깐 여쭙고 싶습니다. 여기에 그렇게 많았던 공동묘지에 묻혀있던 그런 영령들이 큰스님과 어떤 인연이었기에 그런 좋은 인연이 되었는지요? 한 말씀 일러주십시오.

답 인연이 별다로 없는 겁니다. 바람결같이 스쳐가는 인연, 우리 모두가 바람결같이 스쳐가는 인연들입니다. 이게 성시도 아니요, 꿈도 아니요, 꿈도 생시도 아닌…, 생시와 꿈과 둘이 아닙니다. 이것이 모두 바람결같이 돌아가고 찰나찰나의 만남이 그대로 인연입니다. 그래서 이 집을 지으려니까 인연이 된 거죠. 모두 인연이 돼서 하나로 되니까 영령들은 1백이든, 1천이든, 1만이든지 모두 인간으로 환토를 한 거죠. 환토를 해서 내놔도, 내놓은 사이가 없이 또 내놔지죠. 그러니 얼마나 좋습니까. 이 모두가 이렇게 긴요하고 이렇게 무변한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8식이란 무엇입니까

문 네, 잘 알았습니다. 세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한 가지 한 가지씩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대승기신론과 같은 그런 논장을 보면 아뢰야식이다, 장식이다, 여래장이다 하는 그런 말들이 많이 나옵니다. 소위 팔식이라 그러죠. 장(藏)식을 말하는 것인데 그 팔식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 건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마음이라고 할 때의 그 마음과 칠식이다 팔식이다 라고 하는 그 식과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 알고자 여쭙니다.

답 그것을 여러 마디로 할 것 없이 아주 축소해서 말을 하죠. 칠식이다 하는 것은 육근이 공해서 돌아가는 것을 하나로 묶어서 한마음이 된다면 그것이 칠식입니다. 그리고 한층 더 나아가서 내 몸을 떠나서 더불어 같이 이 세상 사무·사유를 한데 합쳐서 한마음이 된다면 팔식입니다. 칠식이래도 하나요 팔식이래도 하나입니다. 칠식하면 칠식은 없어지는 겁니다. 그것도 안에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팔식하면 팔이라는 건 없어지고 식만 남아서 그건 구경경지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느냐 하면 여래장이 되는 거죠.

여래라는 것은 일체 만물 만생이 다 송두리째 둘이 아닌 도리가 되는 것입니다. 둘이 아니기 때문에 나도 없고 너도 없어지는 겁니다. 둘이 아닌 까닭에 모두 부처님자리 아님이 없고, 부처님의 작용 아닌 게 없고, 중생도 없고 부처도 없는 그 자리가 되기 때문에 여래장입니다.

고요한 마음과 생멸심의 관계

문 두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들의 마음 작용을 이렇게 관찰해 보면 일순간도 쉬지 않고 찰나에 일어났다가 찰나에 없어졌다, 찰나에 일어났다가 없어졌다가 하는 그런 작용이 끊임없이 지속이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 말씀 중에는 한생각 일어났다가 한생각 없어지는 그 생멸심이 곧 멸하면 고요하고 고요해 마음이 고요한 경계에 들어가서 그것이 참 낙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고요한 마음의 자리와 끊임없이 일순간도 쉬지 않고 일어났다가 없어졌다가, 일어났다가 없어졌다가 하는 그 생멸심과의 관계는 어떠한 것인지요.

답 하하하, 늘 말씀을 해드리는데요. 우리가 여기 걸어올 때에 한 발 떼었다 한 발 놓고, 한 발 떼었다 한 발 놓는 이것이 바로 생멸입니다. 일어났다 가라앉았다, 일어났다 가라앉았다 이러는 거와 같은 겁니다. 표현을 해서 말을 하자면 안 그렇습니까. 그 일어났다 가라앉았다 하는 마음과 한 발 떼어 한 발 놓고, 한 발 떼어 한 발 놓고 하는 것과 무엇이 다릅니까. 이게 어떻게 둘이겠습니까. 그 한 발 떼어서 한 발 놓고, 한 발 떼어서 한 발 놓고 하는 작용이 없으면 우리가 걸어다니지 못합니다. 안 그런가요?

일어났다 가라앉고 하는 그 마음이 없다면 성불이라는 말도 없을 거고 중생이라는 말도 없을 겁니다. 이해가 갑니까. 그리고 또 한번 방편으로 얘기해 볼까요. 아버지 노릇하다가 남편 노릇하다가 또 형님 노릇하다가 자식 노릇하다가 이렇게 자동적으로 돌아가는 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금방 딴 걸로 돌아가고 딴 걸로 돌아가고, 이렇게 일어났다 놓았다가, 일어났다 놓았다 해도 그냥 여여하게 돌아갈 뿐입니다. 그러니 그것이 바로 둘이 아닌 것입니다. 둘이 아닌 까닭에 그냥 '여보' 하고 부르면 '왜그래' 하고 순간 대답하는 그 마음, 그것은 찰나에 일어나는 마음입니다. 악으로나 선으로나 일어나는 마음을 잘 응용하면 선이 되고, 잘 응용하지 못하면 악이 됩니다. 싸움을 할래도 '여보' 할테고 좋은 말을 할래도 '여보' 할 겁니다. 그런 걸 잘 응용한다면 바로 그것이 부처님의 법입니다.

생멸심 · 적멸심 둘아닌 도리

문 예, 그러시다면 그 한 생각 일어났다 없어졌다 하는 그 마음을 이름 붙여서 생멸심이라 한다면, 그 생멸심과 적멸심이 둘이 아니라고 하는 그 이해를, 번뇌심과 보리심이 둘이 아니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면 이해가 되는 것이겠습니까?

답 번뇌심이라고 관습에 의해서,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요 생각 조 생각이 나지 않으면 광대하게 발전을 할 수가 없어요. 고정된 마음이 있다면 어떻게 돌아갑니까. 요 마음 조 마음, 요 생각 조 생각이 나기 때문에 광대하게 부처를 이룰 수도 있고 광대하게 창조를 해낼 수도 있고, 창조력을 기를 수도 있고, 개발을 할 수도 있고, 발전을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선도 있고, 악도 있구요. 그러니까 번뇌가 아니라, 그냥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그 모든 생각들이 수행하는데 발전하게 하기 위한 재료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나를 발전시키는 재료로 알아야 해요.

항상 내가 그런 말을 하죠, 귀가 아프도록 들었을 겁니다. 동짓날, 팥죽 솥에다 팥죽을 쑤다가 팥죽창물이 수없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주걱으로 '요것도 문수, 조것도 문수' 하고 치면서 '이건 무슨 까닭인가' 했더란 말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은 그것을 말로만 그렇게 하지 그 까닭을 모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번뇌라 하기 이전에 내 몸뚱이가 팥죽 솥이라면 팥죽 방울이 일어나는 대로 그걸 번뇌라고 하는데, 그것은 그 한 그릇 속에서 나오는, 그러니까 화해서 나오는 업식에 속합니다. 그러니 그걸 재료로 알아야죠. 속지 말고 모든 건 한군데서 나오는 거, 그 한 군데에 되놔라 하는 소립니다. '이것도 문수 저것도 문수' 하고 친게 자기 마음의 주장자로써 자기한테서 나오는 것을 거기다가 놨습니다. 방편을 쓴 거라고 봅니다. 그 모두가 중생도 없고 부처도 없는 자리에 또는 일어나는 번뇌도, 망상도 또는 도라는 이름도 없는 겁니다.

그대로 여여하게 걸어오듯이, 아무 생각 없이 그대로 왔습니다. 그것이 바로 수레공법이요, 또는 우리 마음과 마음이 서로 합해져 불이 들어와서 가정이 밝게 살고 사회가 밝게 살게 되는 것이, 바로 한마음으로 밝게 불이 켜졌을 뿐인 것입니다.

세상 구할 수 있는 수행법

문 재료를 재료로서만 알고 재료에 결코 끄달리지 않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세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능엄경〉에 말씀하시기를 '한 사람만 깨달아도 능히 세상을 구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큰스님께서도 늘 그와 같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요즘같이 물질문명이라는 편리 속에서 살다보니까, 금은주옥 같은 그러한 부처님 말씀이나 큰스님의 말씀이 사실은 그렇다고 인정하면서도 그 끄달리는 의식들이 너무 세어서, 돌아서면 잊어버리려 하고 또 금방 자기에게 어떤 큰 시련이 닥쳐오거나 아니면 죽고 사는 길에 도달했을 때나 다른 큰 재료가 다가왔을 때에만이 그런 말씀을 실감하는 것이 아마 저희들의 일반적인 생각인 것도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물질문명이 발달하다 보니 여기에 끄달리는 저희들의 중생심이 능히 세상을 구할 수 있다고 하신 그 말씀과 저희들의 현실과는 어떻게 보면 아주 코 앞에 있는 것도 같고 때로는 굉장히 먼 것 같습니다. 그러니 능히 세상을 구할 수 있다고 하는 이 말씀을 저희들은 어떻게 다시 알아듣고 또 수행을 해야 될 것인지를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일러주십시오.

답 이 마음이란 멀고 까깝고가 없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어떠한, 즉 개인 회사라고 하더라도 기업주가 전깃줄이라 하고 이쪽에서 전깃줄을 하나 대주면 한 순간에 불이 들어와서 그 모두가 밝으니까, 밝음의 전지를 가지고 가는 사람에게 따라 가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전지를 가지고 가는 사람이나 전지의 밝음을 좇아가는 사람이나 똑같이 '밝으니까 가야지' 하는 그 마음뿐이지 그 도리를 모릅니다.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임시변통을 해서 건지는 수가 있고, 하나는 정말 지도자가 이 도리를 알아서 거기에 한마음으로 같이 해준다면 진짜 우주 삼천대천세계에 한 손이 되어서 그대로 건지는 것입니다. 구원을 하는 것입니다. 모르고 구원을 주고 받느냐, 알고 구원을 주고 받느냐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라도 깨우치면 그 가정과 그 나라를 다 이끌어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말을 하죠. 지도자한테 물 한 방울을 딱 떨어뜨린다면 전체가 한 그릇의 마음이 되기 때문에 집어 넣어 준 사람의 마음대로 행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이끌어 가게 되고 구원을 받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는 동시에, 저쪽 물방울이 했다고도 이쪽 물방울이 했다고도 할 수 없죠. 밝게 불이 들어와서 같이 살 뿐입니다. 그거를 가지고 여래심이라고 합니다.

밝게 불이 번쩍 일어났을 뿐이지, 요런 정도에는 이런 불이 필요하고 큰 용도에는 크게 들어와야 하고, 그러니까 그 불빛은 가지각색으로, 심력으로 말미암아 이쪽 전깃줄에다가 저쪽 전깃줄을 붙여 주면 불이 들어와서 큰 데는 크게 붙여 주고, 적은 데는 적게 붙여주어 천차만별로 건지는데 건져도 건져진 사이가 없다 이겁니다. 네가 한 것도 없고 내가 한 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양편이 붙어서 불이 들어왔다면 불 들어온 것뿐인데 이쪽 것이 했다고 하겠습니까, 저쪽 것이 했다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일체 만물 만생은 서로서로 교환하고 돌아가면서 서로 인연에 따라 상대성 원리로 돌아가면서 개발도 하고 발전도 하는 것이고 과학적, 물리학적인 것이 되는 겁니다. 그것도 이름해서입니다. 그런데 심성의학이라야 되고, 심성과학이라야 되고, 심성물리학이라야 그것이 알맞게 작용을 해서 불이 들어올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이 금요일날 나를 친견한다고 그러는데, 가만히 보면 모든 사람들이 내가 말하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아요. 말이 왜 필요합니까. 그 상대방이 하는 말을 들어주면 되는 거 아닙니까? 들어준다고 믿으면 될 거를 왜 자꾸 긁어 부스럼을 만들며 되묻고 되물어서 전깃줄이 붙었다 떨어졌다, 붙었다 떨어졌다 하게 만듭니까? 오히려 불발이 일어나 가지고 안될 수가 있어요. 붙었다 떨어졌다, 붙었다 떨어졌다 하면 불발이 일어나서 잘못되는 수가 십중팔구입니다. 그러니 때와 장소를 가려서, 때에 따라서는 이런 말을 하면 그냥 하는 걸로 족하게 생각하고 귀가 있으면 듣겠지 하고 가란 말입니다.

> 어떤 생각이 일어나든
> 나온 그자리에다 믿고
> 되말겨 놓는다면
> 자기라는 아집 벗어나
> 자유인 될수 있어요

그리고 듣는 사람은 조건없는 사람이래야 되는 거지요. 조건이 있어서, 이런 업이 너는 있으니까 못하고 이런 업보를 지었으니깐 못하고 이러한 병이 있으니깐 못한다는 이유가 붙으면 전깃줄과 전깃줄이 어떻게 붙습니까? 불을 켤려면 이유를 불문에 붙이고 전깃줄을 한데 합치는 거죠. 이걸 붙일까 말까하고 붙입니까, 무조건이죠. 그래서 캄캄하면 불을 켜서 밝게 살고, 잠자고 싶으면, 잠자고 먹고 싶으면 먹어라 이 소립니다. 그리고 변소가고 싶으면 변소가고요. 하하하….

돈오점수에 대해서…

문 예, 큰스님 감사합니다. 이런 기회가 별로 없어서, 큰스님께 한 가지 또 여쭐 말이 있는데, 대중들께는 상당히 죄송합니다마는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공부를 하시는 분들 중에서 돈오점수에 대해서 아직까지 미심쩍은 부분들이 있는데 간단하게 한 말씀만 더 해주십시오. 깨닫고 난 뒤에는 다시 깨달을 것이 없다, 깨닫고 난 뒤에는 한 물건도 없는데 어찌 무엇이 있으랴하는 그런 말씀과 또 어떤 스님께서는 깨닫고 난 뒤에는 보임을 잘해야 된다, 깨닫기 전에는 깨달을 것이라도 있지만 깨닫고 난 뒤 보임을 잘못하면 그건 또 영원히 생사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큰 스님들의 말씀이 아직까지 공부하는 저희들에게는 상당히 의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말 '깨닫고 난 뒤에는 한물건도 없다'라는 그 의미와 '깨닫고 난 뒤에는 보임을 잘해야 된다'는 그 의미를 간단하게 한 말씀만 더 여쭙겠습니다.

답 깨닫고 나서 보임을 잘해야 된다는 것도 맞고, 깨닫고 나면 아무 건덕지가 없다는 말씀도 맞습니다. 왜냐하면 자성부와 자성자가 한 데 합쳐지면 깨닫는 것인데, 그것은 합쳐져서 싹이 났을 뿐이지 자란 게 아닙니다. 자랄려면 그만큼 수행이 뒤따라야 하는 것이죠. 스님네들이 입산을 할 때는 '이 무명초를 다 끊어버리겠습니다'고 다짐을 하고 끊어버렸습니다. 아주 애당초 그랬는데, 그런 마음을 낸 상태에서 형식적으로만 끊어버렸지 진실하게 우리가 무명초 하나 하나를 수행해 나가면서 끊어버린 게 아닙니다. 마음으로 모든 것을 모아서 놓는 반면에 이 무명초가 다 끊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점수다 하는 거는 그런 수행을 하는 나를 발견했으면 둘이 아닌 관계상 알아야 하니까, 즉 남의 탓을 하지 말고, 남의 원망을 하지 말고 어떤 게 있어도 내 탓으로 돌리고 나로 밀어넣고 돌아가야 합니다. 그게 보임입니다. 보임이라고도 하고 보림이라고 하기도 하죠. 모든 것이 거기서 나온 것이니까 거기다 놓고 가야합니다. 악이든지 선이든지 말입니다. 그래서 잘되는 것은 감사하게 놓고 안되는 것도 거기서 나온 거니까 되게 하는 것도 거기다 하고 믿고 놓아서 둘이 아닌 도리를 두번째 깨달아야 합니다.

세번째에 둘 아닌 도리를 알았는데 나투는 도리를 몰라요. 전깃줄과 전깃줄을 대어주고 떼어주고, 대어주고 떼어주고 하는 도리를 모른다면 여래라고 할 수가 없다, 또 일체 중생이 나 아님이 없다 하는 것을 말할 수가 없다 이렇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으로 나투어야 하는데, '아버지가 되었다가 남편이 되었다가 이렇게 나툴 줄을 모른다, 이럴 때는 그 나투는 방법을 알기 위해서 세번째 깨달음이 있어야 된다'이런 겁니다. 그런데 세번째 깨달음이 있어서 나툼의 도리를 안다면, 모든 일체가 나 아님이 없을 때에 자기가 자기 꺾는 법이 없을 뿐만 아니라 자기가 화해서 자꾸자꾸 돌아가는데 어떤 거 됐을 때 내가 됐다고 하고 내가 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수행을 할 땐 점수라고 해도 맞고, 그게 끝났을 때는 너도 나도 둘 아니게 돌아가는 것이니 하나도 없다 하는 소리도 맞고, 둘이 다 맞으니까 둘이 아니다 하는 것도 맞습니다.

절대적으로 이 도리를 이론으로만 알고 생각으로만 알아서는 아니됩니다. 형상을 보고 무시하거나 그래도 아니됩니다. 형상을 보고 배우는 게 아니라 형상과 정신과 둘이 아니게 작용하는 도리를 배우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고 작고도 없고 일체 만생이 생명없는 것이 하나도 없고, 전력이 똑같 듯 생명은 다 똑같은 것입니다. 그것을 알려면 모두 하나도 버림이 없이 되고 버림이 없어야 항복을 받고 항복을 받아야 하나도 버릴 게 없는 도리가 나옵니다. 질문하실 분 또 없습니까?

주인공에 맡겨도 안될 때는…

문 저는 주인공을 믿고 공부한 지는 별로 안 되는데, 지난번에는 병이 났는데 주인공에 맡겨서 병이 나았습니다. 그런데 주인공에 맡겨도 안될 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답 하하하, 안 되는 것도 법, 되는 것도 법이라는 뜻이 있어요. 우리가 돌아서서 갈 때도 있고 앞으로 그냥 갈 때도 있지요, 응? 어떻게 바로 가는 것만 가는 거고 뒤로 가는 건 가는 게 아니겠어요. 싸울 때도 전진해야 할 때가 있고 후퇴할 때도 있지요. 그러니까 안 되는 것도 되는 거고 되는 것도 되는 겁니다. 포위를 당했을 때는 뒤로 물러서야 되는 것이지요. 후퇴를 해야 살지요. 그러니까 양면을 다 감사하게 생각해야 한다, 이 소리입니다. 그래야만이 그 도리를 알게 됩니다.

동생이 7년째 앓고 있습니다

문 저에게는 나이 많은 동생이 하나 있는데, 한 7년전부터 앓고 있습니다. 늙으신 어머니께서 병 시중을 드는데, 부딪치기만 하면 어머니하고 환자가 싸우려고 합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큰스님 일러주십시오.

답 과거에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온 것이니, 놓는 관법을 알고 그렇게만 믿고 말긴다면 문제는 해결될 일입니다. 모든 것은 여러분의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가족 간의 화목도 그렇고 이웃간의 화목도 그러합니다. '내가 왜 고개를 숙여, 내가 하는 게 옳은데. 내가 잘못한 게 뭐 있어' 하면서 마음을 일으켜서 자기를 세운다면 절대 화목이 올 수 없습니다. 어떠한 생각이 일어나든지 간에 나온 그 자리에다 믿고 되말겨 놓는다면 자기라는 아집에서 벗어나 자유인이 될 것입니다. 더욱 열심히 정진들 하십시오.

그림 · 최주현

둘이 아닌 까닭에 부처도 중생도 없어요
이생각 저생각 나지 않으면 발전 못하죠

협찬 한마음선원 신도회